나주서 학업성취도 시험문제 유출

학습지 공부방, 초등생들에 유포…경찰 진상 조사 착수

전남도교육청이 주관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문제가 학습지 판매 회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통해 나주지역 2곳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험 문제 유출에 따라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해당 학교에서 재시험까지 치르는 등 소동을 빚어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시험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1년에 2회(1학기 말·2학기 말) 전남도교육청이 출제 문항을 2배수로 만들어 도내 각 초등학교에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자료로 활용을 권하고 있으나 학교에 따라 학교 성적에 반영시키기도 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지난 1일~4일까지 전남도내 451개 초등학교에서 치러졌으며, 나주 관내 23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일 일제히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 2일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된 나주 모 초등학교 A군이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배포한 것과 같은 시험문제를 소지하고 있다가 학교측에 적발되면서 시험문제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측은 A군을 통해 이 시험문제가 전날 나주지역 모 학습지 공부방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나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또 다른 나주 모 초교 6학년 B모군 등이 담임교사의 자료철에서 관련 CD를 입수한 뒤 복사해 학습지 공부방에서 유포했던 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와 상충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험문제가 유출된 학교 교사 개입설, 학습지 회사 관련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주경찰은 8일 해당 초등학교 교사 1명과 해당 학생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연루된 두 학교는 지난 6일과 8일 재시험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문항을 2배수로 출제해 각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는 그 문항 중에서 선별해 시험을 치러왔었다.

도교육청은 시험 문항을 CD로 만들어 지역교육청 장학사가 수령한 뒤 시험 보기 직전 각 학교 교감에게 배부하는 등 문제유출에 대비해 사전통제를 철저히 했었다고 밝혀왔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8일 새벽 3시30분께 순천시 서면 호남고속도로 서순천IC 인근에서 25t 탱크로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최고 542% '살인 이자'

무등록 대부업 조폭·사채업자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무등록 대부 행위를 일삼아온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문모(47)씨와 사채업자 김모(47)씨 등 2명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6년 6~8월 친구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하게 한 후 1억원을 투자해 92명에게 6억3천500여만원을 무등록 대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6~9월 100명에게 최고 542%의 연이자로 사채를 빌려준 뒤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부업자에게 1천만원의 사채를 빌리고도 변제를 미뤄 오다 업체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착각, 지난 7월 대부업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모 폭력조직 두목 전모(51)씨를 함께 입건, 조사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범죄자 78명 신상정보 열람 가능

광주·전남 거주자 14명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8명의 개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는 각 7명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3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131명 가운데 현재 수감 중인 53명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나머지 78명은 국민들이 언제든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78명 가운데 69명(88%)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강제추행했고 8명은 강간, 1명은 성매수 혐의로 형을 받았다.

정보 열람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장은 신분증명서 1부를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연합뉴스

조성민 "모든 권리 최진실 유족측에"

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사진〉이 8일 "두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외할머니인 정옥숙씨에게 이양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조성민은 이날 오후 반포동 서초아트홀에서 최진실 측 법률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뜻에 따라 법원에 두 아이들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고, 법률 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아이들의 친아버지임을 빌미로 고인의 재산을 욕심내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게돼 마음이 아팠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푼의 유산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성민이 이같은 뜻을 밝힘에 따라 최진실 사후 조성민과 최진실 유족간에 벌어졌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재산권에 대한 다툼은 일단락되게 됐다. /연합뉴스

장애인 보장구 허위 판매 보조금 가로챈 40대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판매하지도 않은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의료기 판매업자 이모(45)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송모(여·72)씨 등 장애인 4명에게 200여만원 짜리 전동휠체어를 팔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해 '장애인보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휠체어 값의 80%가량을 보조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단에 이 사실을 통보해 부정 청구금을 환수조치하도록 했으며,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얼어붙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속출

탱크로리 전소 등 호남고속도로 6시간 통제

8일 새벽 내린 비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호남·남해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8일 오전 3시30분께 순천시 서면 호남고속도로 서순천IC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운행하던 25t 탱크로리(운전자 김모·35)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서 유출된 32㎘의 항공유에 불이 붙으면서, 탱크로리와 구난작업을 하던 견인차 등 차량 3대가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탱크로리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차량 잔해를 정리하느라 호남고속도로 상·하행 4개 차로가 6시간 동안 통제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도로공사 측은 서순천 IC 진·출입로를 이용해 정체된 차량을 우회시켰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연쇄적으로 부딪치기도 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에는 순천으로 향하던 25인승 버스가 동광양IC 인근에서 미끄러지면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새벽 5시30분께는 호남고속도로 석곡IC와 주암휴게소 사이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비슷한 시각 남해고속도로 동광양IC와 옥곡IC 사이에서 10중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등 호남과 남해고속도로 전역에서 이날 새벽에만 17건의 빙판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남해고속도로 함안 군북과 장지 지점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남해고속도로 진주 분기점에서 화물차끼리 추돌하는 등 경남도 지역에서도 접촉 사고가 잇따라 수십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는 "새벽에는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도로가 얼어 붙을 수 있어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현주·김은종기자 ahj@

중국산이 영광굴비로 둔갑 판매 7명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8일 중국산 냉동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해 판매한 한모(48)씨 등 7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영광에 영어조합법인을 차려 놓고 부산항을 통해 수입한 중국산 냉동 조기 7t가량을 영광으로 가져와 가공한 뒤 '영광 법성포 굴비'라고 적힌 상자에 포장, 전국 대형 마트와 도·소매상들에 판매해 3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7673〉 김종두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남편 자살 문자에 119 신고 구조

쌍나팔

○…부부싸움 후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

○…광주광산소방서에 따르면 A(여·35)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10분께 광산구 소촌동 모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끝에 '목을 매 죽겠다'는 남편 B(40)씨의 문자를 받고 119에 신고했다는 것.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월곡119안전센터 대원들은 호흡이 없는 B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가던 중 전기충격을 가해 B씨를 살려냈다고.

○…응급조치를 했던 방정수(29) 소방사는 "부인이 남편의 문자를 받은 뒤 침착하게 대응해 남편을 살려낼 수 있었다"며 "응급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 /강필상기자 kps@